

이 자료는 2023년 5월 25일(목)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시장 동정자료



■ 매수 : 2매 ■ 사진 :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press.webhard.co.kr) ID/PW:press1

담당 :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2133-6205	신문팀장	2133-6207	담당자	2133-6253
박 경 환		천 세 은		조 향 윤	

오세훈 시장, 글로벌 큰손 투자자 초청해...벤처투자 흑반기 출구전략 모색한다

- 25일(목), 「글로벌 벤처 인베스트먼트 서밋 인 서울」 공동개최-

-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목) 오전 9시, 여의도 콘래드 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리는 「글로벌 벤처 인베스트먼트 서밋 인 서울(Global Venture Investment Summit in Seoul, 이하 GVIS Seoul)」 개막식에 참석한다. 투자 보릿고개에 직면한 벤처생태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투자처로서 서울의 매력을 세일즈한다.
- 서울시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주최, 서울투자청이 주관하는 이번 투자유치 행사는 5월 25일(목)부터 26(금)까지 양일간 여의도 콘래드호텔과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유럽, 동남아 등 글로벌 출자기관(LP)을 서울로 초청해 국내외 금융관계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서울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행사에서는 벤처투자현황의 세계적인 동향, 국내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협업을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출자기관(LP) 기초연설 ▲벤처투자 세미나 ▲글로벌 투자자 패널 토론 등 다양한 행사가 양일간 진행된다.

- 오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을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비전2030 펀드' 조성, 서울투자청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을 소개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벤처생태계를 확대해나가는 서울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한다.
- 서울시는 벤처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년간('23~'26) 총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투자청은 2022년 출범한 서울시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가진 서울 유망기업 중심의 코어(CORE)100 기업 발굴, 유망기업의 해외 자본유치, 해외기업의 법인설립부터 정착지원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외국인투자유치(FDI) 올인원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범 첫해인 작년에는 넷플릭스의 자회사인 아이라인 스튜디오를 서울에 유치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서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서밋 인 서울」 참석 일정

시간	구 성(안)		장소
1일차 [5.25.(목)]			
09:00~ 09:30(30')	10'	○ 개회영상 시청, 일정안내 및 참가자 소개	파크 블룸
	05'	○ 개회사(영어) : 서울시장	
	10'	○ 환영사(한국어)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벤처캐피탈협회장	
	05'	○ 기념촬영 및 내외빈 퇴장	

※ 관련 부서 : 금융투자과 투자유치팀장 김윤정 ☎2133-4760

관련 보도자료 : 금융투자과, 조간용(5.24)